

## [ 오피니언 ]

## 테마칼럼

이상기

성지프리즘

경제의 눈

문화인기



조 담

“

평가와 심판이 없이 제시된 비전은 실천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슬로건이나 공염불 또는 사기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선거는 책임정치의 출발이고 핵심이다.

”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나라'이다. 그 동안 대한민국 국민이 민주주의를 위해 치열한 희생의 대가로서 국민의 정치참여가 확실하게 보장되는 수준까지 민주주의가 성장하였다. 외국의 정치분류가 경제적·기적·정치적 기적을 모두 달성한 모범적 사례로 대한민국을 언급한 것을 보고 필자는 커다란 긍지를 느꼈다.

최근 제기된, 어떻게 보면 생뚱맞은 것 같은 어떤 주장을 보고 긍지를 느끼기에는 아직 부족한데 그것을 깨닫았다. 즉, 우리나라의 정치상황이 책임정치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어떤 정치학자의 주장이 그것이다. 좀 더 생각해보면, 이 주장은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선거와 같은 정치절차가 그 기능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도 동일한 것이다.

책임정치를 실천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책임정치는 정치권력의 수임자들이 선거를 통해 그동안의 치적을 떠올리며 심판받는 데로부터 출발한다. 선거는 국가적 비전에 합의해주는 기능을 갖기도 하지만, 과거의 치적을 국민들이 평가하고 심판하는 기능도 함께 갖는다. 평가와 심판이 없이 제시된 비전은 실천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슬로건이나 공염불 또는 사기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선거는 책임정치의 출발이고 핵심이다.

필자가 잘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5년

## 책임정치

전 민주당 후보였던 노무현 후보는 국민연금이 많이 부담하고 적게 혜택받는 국민연금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겠다, 7% 경제성장을 달성하겠다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경제공약을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한지 얼마 안되어 민주당을 떠나 열린우리당에 입당하였다.

언젠가 대통령은 7% 경제성장 공약이 단순한 선거전술적 대응에 불과한 것이었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였다. 고성장의 공약을 믿고 취업기회와 투자기회의 확대를 기대하던 국민들은 계산할 수 없는 막대한 손실과 함께 큰 실망을 느껴야만 했다.

현정권은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머지않아 재원이 고갈될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부담과 더 적은 혜택이 주어지는 연금 프로그램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선거 때 공약하던 대로 더 적은 부

담과 더 큰 혜택을 주는 국민연금을 기대하던 국민들은 그 기대가 허망한 일장춘몽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순진함을 탓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치적이 평가되어서는 안된다. 지난 5년 동안 개성공단 개발, 공기업 지방이전, 한미FTA, 북한과의 새로운 경제협력 기회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치적도 있었다. 그것들이 공적으로 평가되든, 실책으로 심판되든 그 평가와 심판은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국민들이 행사하

게 될 소중한 권리이다. 이것이 책임정치의 핵심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국민들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지난 5년간의 치적을 평가하고자 벼르고 있는데, 평가받아야 할 대상이 없어진 것이다. 대통령은 단임제이기 때문에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평가, 심판할 수는 없다. 국민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난 5년을 담당했던 여당, 즉 열린우리당에 대해 그 치적을 평가하고 심판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여당이 사라져버리고 대통령 후보를 낼 수 없게 되어 버렸다.

여전 후보는 자신이 그 여당의 계승자라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게 주장하려면 지금이라도 열린우리당을 재건하여 그 당의 후보로 나서야 한다. 열린우리당의 실책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고 그 공은 자기의 치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비열한 기회주의이다.

또 어떤 사람은 반대당에 대한 투표를 통해 여당의 치적을 심판할 수 있다고 한다. 그건 그렇지 않다. 반대당은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따름이다. 책임정치의 출발은 과거의 치적을 평가, 심판하는 것이지 미래의 비전에 합의해 주는 것이다. 국민은 과거의 치적을 평가, 심판하고 동시에 미래의 비전에 합의해 주기를 원한다.

〈전남대 경영학부 교수〉

※ 본문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 의료 칼럼

박진우



사람들은 일상속의 소중함을 잊고 사는 경우가 많다. 일상적이고 당연한 것 이기며 더 소홀할 수 있는 눈을 지키는 방법을 소개한다.

사람들은 선글라스를 멋내기 위해 쓴다고 생각하지만 자외선이 많은 4~8월 사이에 운전을 하거나 야외활동을 할 때 선글라스 착용은 필수다. 자외선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백내장이나 황반변증 등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눈에 맞지 않는 선글라스를 오래 사용할 경우 안구 피로 및 시력저하 등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의식적으로 눈을 자주 깨끗이 눈

비타민 A·B1·B2·B6가 많이 든 녹황색 야채와 고등어 등 등푸른 샐러드를 즐겨먹는다. 눈의 단백질 대사에 관여하는 물질들이 다양 들어 있기 때문이다. 담배는 백내무익.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켜 산소 공급을 감소시킨다. 이로 인해 백내장, 황반변증, 녹내장 같은 병이 생길 수 있으며 간접흡연자에게도 안압상승, 혈관 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어두운 곳에서 책을 보거나 작은 물체를 보면 근시 진행을 빠르게 할 수 있다. 특히 눈이 크지 않는 동양인의 경우 급성 녹내장 발생할 수 도 있으므로 조명

## 기 고

최수명



지역민들의 비전과 소망을 가득 담고 출발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준비 일차'가 드디어 8일 '공동혁신도시 실행 일차'로 궤도를 옮겼다.

혁신도시 건설은 '지역균형발전의 행동화'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길고도 어두운 터널 속에서 헤맨 적도 있고, 끝이 보이지 않는 혈곡을 아슬아슬하게 지나기도 했다. '이번 만큼은 반드시 결실을 맺고 말겠다'는 의지와 신념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노정이었다.

참여정부 5년은 지역균형발전정책 수행의 진정성과 행동성을 높고 봤을 때 역대 어느 정권보다 확실히 차별화된

성지'가 '화해협력의 선진지'로 거듭나고 있다. 이는 지역주민들에게 커다란 자부심을 심어 주기에 충분한 것이다.

이제 우리는 공동혁신도시 조성을 통해 그간 분열되고, 치들고, 어려웠던 과거를 물고 통합되고, 여유있고, 활기 있는 꿈의 실현 가능성을 실현하고자 한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퀘어야 보배'라는 속담처럼 이제는 지역주민 모두가 사업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꿈은 용기를 잃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성을 다할 때만 이뤄지

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로서의 초심을 잊지 않고

## 나주 혁신도시, 광주·전남 상생발전 불꽃

다. 과거 정권과는 달리 중앙정부 스스로가 주요 공공기관들을 지방으로 옮기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혁신과 발전을 촉진하겠다는 의지를 실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보수정치 세력과 수도권의 보수적 엘리트집단 일부가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미명하에 '수도권 일극체제의 성장 발전론'을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주요 선진국에서는 유례를 찾기 힘든 논리로, 국가의 통합과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의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타당성이 있다.

나주공동혁신도시는 다른 지역의 혁신도시와는 다른 자랑거리다. 원래 한 뿌리이었던 광주시와 전남도가 서로의 이익을 초월하여 하나로 통합·추진하는 전국 유일의 사례이다.

특히 지역이기주의의 벽을 넘어 '양보와 협력'이 더 큰 이익이라는 대승적 자세로 단일화에 성공함으로써 '민주의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견지하여야 한다. 혁신도시의 건설 계획과 설계는 기술적인 구조일 뿐 이를 현장에서 실현하고 창조해 나가는 것은 그 주인이 지역주민들의 뜻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기관들에 대해서도 능동적인 배려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역사적으로 뿌리를 내린 일터를 옮기는 것은 무척 고통스러움을 공감하고, 그들에 따뜻한 위로와 정성스런 배려로 감동시켜야 한다.

우리는 혁신도시의 성공에 매우 낙관적이다. 더이상 물려설 곳이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착공의 삶'은 우리에게 모든 곳에 새로운 희망을 주는 '미래의 삶'이며,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축하와 성원을 드립니다.

〈전남대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 눈 건강을 위한 10계명

주위에 눈물이 고르게 퍼지도록 하면 눈의 피로를 줄이고 노화를 더디게 할 수 있다. 올바른 눈 깜빡임(blinking)은 안구건조증의 완화와 콘택트렌즈 착용으로 인한 부작용도 예방할 수 있다.

모니터나 책을 많이 보는 사람들의 경우 먼 곳을 자주 바라봐 안구가 경직되는 것을 막고 눈의 피로를 줄여줘야 한다. 눈을 감고 쉴 때보다 먼 거리를 바라볼 때 피로회복이 2배 이상 빨라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함부로 암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암노드 몸에 흡수되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암외에는 방부제가 들어있어 장기간 사용하면 각막염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며, 스테로이드제가 든 암력을 오래 사용했을 경우 녹내장 및 합병증 백내장 등을 유발 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시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

이 밝은 실내에서 생활하는 것이 좋다. 책과 눈 사이는 35~40cm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TV는 모니터 크기의 3배 이상, 즉 74cm(29인치) TV이면 약 2.5m 거리만큼 간격을 두고 보아야 한다. 또 핸드폰 문자 등을 사용할 때 너무 가깝게 보거나 움직이는 차 안에서 보면 눈의 피로가 빨라진다.

나이가 들면 눈의 조절력이 감소하는데, 근거리 시력이 저하되는데, 이때 두꺼운 들포기로 일찍 사용하면 조절력이 떨어지면서 근거리 시력이 저하되므로 조심해야 한다. 들포기를 처음 맞출 때는 안과에서 근거리 시력 및 조절력을 확인한 뒤 처방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당뇨 등 전신질환이 있거나 눈 수술을 받은 경우 이상이 없더라도 정기 검진을 해야 한다. 특히 콘택트렌즈를 사용하거나 안구건조증이 심한 경우도 필수다. 〈이연안과 원장〉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견지하여야 한다. 혁신도시의 건설 계획과 설계는 기술적인 구조일 뿐 이를 현장에서 실현하고 창조해 나가는 것은 그 주인이 지역주민들의 뜻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기관들에 대해서도 능동적인 배려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역사적으로 뿌리를 내린 일터를 옮기는 것은 무척 고통스러움을 공감하고, 그들에 따뜻한 위로와 정성스런 배려로 감동시켜야 한다. 우리는 혁신도시의 성공에 매우 낙관적이다. 더이상 물려설 곳이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착공의 삶'은 우리에게 모든 곳에 새로운 희망을 주는 '미래의 삶'이며,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축하와 성원을 드립니다.

〈전남대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 드럼세탁기 10kg·12kg 제품 용량은 같다는데 사실인가

## 산악 사고 빈발…기본 안전조치만 잘해도 예방효과 높아

스 등 다양한 기능도 많아 편찮을 것 같았다. 그런데 세탁기를 구입한 몇 일 뒤 인터넷에서 드럼세탁기의 경우 10kg, 12kg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실제 사이즈는 동일하다는 것이다. 결국 12kg짜리를 살 수 있는 돈으로 10kg짜리를 구입한 셈이 됐다.

소비자를 상대로 한 이런 속임수 행위를

사는 내리막길을 선택 ▲셋째 나이, 건강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산행을 자제 ▲넷째 2인 이상 등산하되, 일행 중 가장 약한 사람을 기준으로 산행 ▲다섯째 썩은 나뭇가지 풀, 불안정한 바위에 지지할 때는 주의 ▲여섯째 길을 잘못 들었다고 판단되면 지나온 위치까지 되돌아 갈 것 등의 기본사항만 잘 지키면 사고비율은 많이 줄 것으로 판단된다. ▲이동영·서부소방서 구조담당

## 시 설

## 정치권에 발목 잡힌 서남권 발전 계획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 중인 전남 서남권 개발이 정치권의 발목 잡기로 전진화가 겪졌다. 서남권 개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서남권 특별법,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특별법 등에 대해 한나라당이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8일 무안국제공항 개항식에 참석해 "서남권 개발은 지역 발전 차원을 넘어, 환경해권에 국가발전의 새로운 거점을 마련하는 사업인 것이다. 서남권 개발은 특별법에 대한 특혜로 봐야하는 게 아니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태도는 '말 따로, 행동 따로'의 이중적 행보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얼마 전 대선을 앞두고 호남 구애에 나서면서 광주·전남지역 현안 법안의 국회통과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수차례 밝혔다. 서남권 특별법은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이며, F1 특별법은 문광위 여야 의원들의 반대가 심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한나라당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서남권 개발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서남권 특별법 등이 통과되지 않아 서남권 개발 계획이 차질을 빚는다면 그 책임은 한나라당이 져야 할 것이다.

광주지방노동청이 지난 7일 개최한 실버 취업박람회가 형식에 그쳤다고 한다. 많은 업체들이 응시자격을 60세 이하로 제한해 박람회 취지가 빼색시켰다는 것이다. 일자리를 찾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박람회장을 찾은 노인들을 우롱한 결과를 빚었다니 안타깝다.

취업박람회에는 노인 2천여명이 몰려 성황을 이루었다. 하지만 66개 참가업체 중 연령 제한이 있는 업체는 3곳에 그쳤고 61세 이상이 지원할 수 있는 곳은 18개 업체에 불과했다. 65세 이상 노인을 받는 곳은 5개 업체였다. 많은 노인들은 나이 제한에 걸려 이어서도 내지 못하고 밭길을 둘어야 했다.

'나이보다 능력이 우선입니다'는 현수막이 대걸렸지만 연령 제한이 없는 일자리는 대부분 청소원과 경비직 등이었다. 상당수 업체들이 당초 나이 제한을 40~50세로 생각했다니 할 말이 없다. 업체들이 노인 채용을 기피하는 것은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행정기관과 기업이 앞장서 연령 제한 폐지와 새로운 아이템 개발 등 노인 일자리를 찾기 위한 것이다. 하여, 신복룡 교수는 '제8조'가 권력 다툼을 벌이던 신라에 신하들에 의해 위조됐다고 추론한다. (신복룡, '한국사 새로 보기')

삼성그룹 비리를 폭로한 변호사가 광주사립으로 알려지면서 인터넷이 뜨겁다. '용기 있는 행동'이라는 평가와 '전라도는 역시 믿을 수 없다'는 댓글이 도배질을 하고 있다. 부모들은 "자식들 취직이 다 막히게 생겼다"고 걱정이 태산이고, 삼성에 몸담고 있는 직장인들은 "임원 승진은 물건 같다"고 한숨이다.

오랜 세월 호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뿌리가 됐던 '후요십조'의 맑령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